

세월호법 처리·계파 갈등...안팎 난제 '해결사' 기대

우윤근 새정치 새 원내대표 풀어야 할 과제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3대 서민증세' 대응 주목 범친노 진영 지원 당선...계파 초월 균형잡기 시험대

우윤근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지만 앞날은 험난하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산적한 원내 현안의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 처리를 마무리하는 일이 급선무다.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난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족들이 특검 후보군 선정 작업에 직접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 참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중간에 낀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어떠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 주목된다.

여기에 세월호 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난제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등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3대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30여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야당의 대안을 관철시키는 것도 과제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11월 '예산국회'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안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예산안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

특히,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정부의 '3대 서민증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시절인 지난 9월 예산정책 기자간담회에서 "부자감세 철폐 없는 서민증세를 막고,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정부와의 일전을 예고한 바 있다.

뿌리 깊은 당내 갈등도 풀어나가야 할 난제다. 실제로 우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범친노 진영의 적극적인 지원이 바탕이 됐다는 점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범친노(친노무현)로 분류되는 우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가세함으로써 비노(비노무현)·중도 진영을 중심으로 '친노 일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우윤근 프로필

출생 1957년 9월24일(전남 광양)

- 1977년 광주 실례시고졸
- 1984년 전남대 법학과졸
- 1991년 同대학원졸
- 1999년 법학박사(전남대)
- 200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대학원 정치학과졸

주요경력

- 2003~2007년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광양·구례,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광양,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 2009~2010년 同원내수석부대표
- 2010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광양·구례, 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 2013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위원장, 동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실천위원회 위원

10월9일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 선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에 선출된 우윤근 의원이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축하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색이 아니냐'는 불만이 강하게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우 원내대표에 대해 친노 그룹의 '바지 사냥'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강화특위를 통한 지역 위원장 선출, 전당대회 경선 불 결정 등의 과정에서 특정 계파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질 셈이다.

우 원내대표가 범친노라는 '딱지'에도 불구하고, 계파색이 없고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결선 투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우리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 원내대표가 남은 기간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배격'을 내걸고 지난달 말 결성한 가칭 '구당구국(救黨救國) 모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도·온건,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만든 이 모임은 친노 중심의 비대위로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결성됐다.

이 모임에는 정대철·이부영·정동영·천정배 등 중진·원로 인사들을 비롯해 추미애·강창일·이종걸·주승용·이상민·노웅래·문병호 의원 등과 조배숙·문학진·장세환·최규식 등 전직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향후 초·재선 의원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구당구국 모임'은 지난달 22일 첫 모임에서 비대위에 중진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구당구국(救黨救國) 모임' 주목

'친노 패권주의 배격' 중도·온건 전·현 의원 20명 결성 초·재선 중심 勢 결집... "신당 창당 추진 등 배제 못해"

는데 뜻을 모으고 문화상 비대위원장에 정동영 전 의원, 추미애 의원 등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 좌장인 정대철 상임고문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모임 결성 이유에 대해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당의 '좌클릭'을 걱정하는 원내·외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원로부터 초·재선 의원까지 다양한 층에서 우려가 나왔다. 당의 몰락을 막기 위해 중도 노선을 강화하는 결사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어 '신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스스로 개혁해서 신당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 지도부가 개혁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하지만 번개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에서 깎발을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와 우파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 외에도 새정치연합 내에는 이미

중도·온건 성향 의원들의 모임으로 '공나물 모임'(공나물국밥집 회동서 유래)과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모임이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시도하면서 세를 불린다면 친노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당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9일 "구당구국 모임이 당장은 친노를 견제하고 나아가 친노와 당권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신당 창당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 전 대표를 찾아갔던 정동영 상임고문은 '호남을 토대로 한 신당추진 모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역주의는 옳지 않고, 그런 얘기는 너무 앞질러간 해석"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시민단체협, 윤장현 시장 취임 100일 평가

잘했다 상생-車 100만대 전략·수평적 리더십 아쉽다 조직개편 파트너십 부재, 보은·촉근인사 분발을 공정·도덕성 잃지 않는 시민시장 바란다

려하더라도 윤 시장의 100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면서 "소통과 광주정신을 이야기했지만, 조직개편과정에서 의회와의 파트너십 부재를 드러냈

고, 캠페이션 소송취하 과정에서도 시민에게 일방적인 통보의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의 전시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계를 실망시켰으며, 광주정신과 광주비엔날레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시장은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일련의 인사에서 보은인사, 촉근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도덕성과 공정함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바르게 가는 광주정신을 통해 성공한 시장, 시민시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www.iwest.co.kr

빛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WPP

http://www.facebook.com/kwepa

앞한 정보가 가득한 한국서부발전의 공식 페이스북 많이 이 방문해주세요.

전기가 있어 행복한 세상!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이 만듭니다!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아름 아래 구성원의 열정과 도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 양덕 사천연 군산

With Pride
WPP 한국서부발전(주)